광주·전남 수능 영예의 최고점자들

"원리학습·개념이해 학습 주효 학원 하나 없는 시골학교 자랑"

곡성고 백주홍군

전체 재학생 150여명인 자그마한 전남 시골학교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곡성고 3학년 백주홍(18)군. 백군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2외국어를 제외한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국사·윤리·한국근현대사) 등 4개 영역 6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백 군은 제2외국어(아랍어) 영역에서 만점을 놓쳤지만 이 영역이 통상 수능 만점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 과목 만점인 셈이다.

곡성 출신인 부모님과 살며 삼기초, 곡성중을 거친 백군은 학원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었다. 학원 대신 학교와 독서실 등에서 충실하게 자기주도형 학습을 했다. 백군의 이번 쾌거는 농어촌 기숙형고교인 곡성고가 운영하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의 도움이 컸다.

기숙형고교와 자율학교로 지정된 곡성고는 진로상담, 해외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했다.

백군은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원리학습과 개념이해 중심으로 학습한 것이 효과를 봤다"며 "독서를 통해 얻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학교에서 실시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학교 수업시간·자율학습 집중 수준별 수업 공교육 강화 결실"

광주고 김형진군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광주고등학교가 2012학년도 대입 수능 3개 영역 만점자를 배출했다.

광주고 3학년 김형진(18)군은 언어·수리·외국어 3개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광주지역에서 3개 영역 만점자는 김군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과탐(화학Ⅱ, 생물Ⅰ, 물리Ⅰ)을 포함한 모두 4개 영역 6과목 시험을 치러 물리에서 1문제를 틀려 모두 5과목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김군은 현재 서울대 의대 수시에 지원해 놓은 상태다.

김군의 성과는 공교육의 힘으로만 이뤄낸 값진 결실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김군은 "학교 수업시간에 총력을 쏟은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말했다. 학교수업은 물론 자율학습 등 학교에서 머물러 있을 때 온힘을 기울여 공부했다는 것이다.

토·일요일에는 휴식을 위해 공부를 잠시 접어둔 채 기타를 치고, 친구들과 운동을 했다고 한다.

김용하 교장은 "수준별 수업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직원들이 힘을 쏟은 결과인 것 같다"며 "학생들이 대입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경찰청 차장에 강성복 경무관 임명

신임 전남지방경찰청 차장에 강성복 경찰청 장비과장이 경무관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지난 30일 "총경 16명을 경무관으로 승진시키고 경무관 20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호남 출신으로는 강 차장(보성)과 함께 이기창 경찰청 정보4과장(장흥)이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한광일 전남지방청 차장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으로, 전석종 경기지방청 1부장은 경찰청 교통관리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강 신임 전남지방청 차장은 조대부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지난 85년 간부후보 33기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곡성서장, 본청 대테러센터장, 서울 성북서장 등을 거쳤다.

한편 이날 경무관 인사에서는 승진 내정자 16명 중 경찰대 출신이 9명을 차지했으며 간부후보 출신 5명, 고시 출신 1명, 순경 출신 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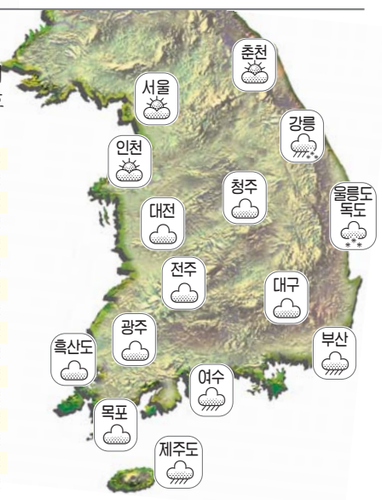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2분 해짐 17시 21분 달뜸 11시58 분 달짐 23시 33분

아침 안개 주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전에는 안개가 많이 끼고 흐리겠다.

광 주	흐림	6/11℃
목 포	흐림	6/10℃
여 수	흐리고한때비	8/10℃
나 주	흐림	5/11℃
완 도	흐림	7/11℃
구 례	흐림	5/10℃
강 진	흐림	6/11℃
해 남	흐림	5/11℃
장 흥	흐림	5/11℃
순 천	흐림	7/11℃
영 광	흐림	5/11℃
진 도	흐림	6/11℃
전 주	흐림	5/10℃
군 산	흐림	4/9℃
남 원	흐림	2/9℃
흑산도	흐림	8/1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먼바다	북~북동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3.0m
먼바다	북~북동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관심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먼바다	북~북동	2.0~4.0m

	밀물	썰물
목포	06:04 18:46	11:13 --:--
여수	00:48 13:26	06:44 19:4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날 씨						
최저/최고	5/11	7/10	3/11	2/12	3/12	5/11

환호·낙담 엇갈린 표정 지원 전략 짜기에 바빠

■ 성적표 받아 본 고3 교실

지난 30일 오전 10시 광주 대광여고 3학년 6반. 교실문이 열리고 담임교사가 수능 성적표 뭉치를 들고 들어오자 "와~"하는 소리와 함께 긴장이 감돌았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이날 대광여고 3학년 교실에서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낙담하거나, 예상보다 오른 점수를 받아 기뻐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엇갈렸다.

대광여고 추수정(18)양은 "가채점과 같은 점수가 나와 다행"이라며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다.

추양은 "이번 수능에서 자신 있었던 외국어 영역이 너무 쉽게 나와 사실은 못마땅 했다. 외국어(영어)의 변별력이 없는 데다 다른 수험생들도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경쟁이 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교육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김지현(18)양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선 외국어 영역 점수가 중요한데 다들 점수가 높다고 하니 걱정이다. 그래도 내 점수면 안정권이라 생각하고 소신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낮은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문주원(18)양은 "아쉽지만 어쩔수 없다. 수학교육과를 지망하고 있는데 쉬운 수능으로 동점대가 몰려있다고 하니 점수대를 낮춰 지원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중위권을 중심으로 치열한 눈치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대광여고 진학부장은 "쉬운 수능으로 정시 지원에서 중위권 혼전이 예상되지만 이런 때일 수록 수험생들은 철저한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각양각색 2012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 30일 광주시 남구 대광여고 3학년 학생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이다. 수험생들은 이 성적을 토대로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대학별 정시모집에 지원하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총선 부정선거 방지 '지역별 전담검사제'

광주·전남 지역 검찰·경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오전 '선거사범 대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선거사범 단속방안을 수시 협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공안부 검사, 광주·전남지방경찰청 수사 · 정보과장, 선관위 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 앞서 검찰은 공안부장 등 15명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지역별 전담검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들 기관은 오는 13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각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음주운전 처벌 세진다

9일부터 … 측정거부땐 최고 1000만원

무단 노상정지·과도한 회전 집중단속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내달 9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9%인 음주운전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음을 감안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처벌의 하한선을 설정,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녁 식사 시간대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선별적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유없이 노상에서 정지하거나 ▲앞차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거나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크다며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